삼성 여름캠프… 전북지역 학생 혜택 못봐

전북교육청이 교육운영 방식과 맞지 않다며 수년째 캠프에 부정적

삼성이 '2018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생들은 여전히 캠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운영 방식과 맞지 않다며 수년째 캠프에 부정적이기때문이다.

30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7일 전국 6개 대학에서 중학생 1641명이 참가하는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를 열고 3주 간 본격적인 합숙교육에 돌입했다.

캠프에 참가한 전국의 중학생들은 대학생 강사들과 합숙하며, 영어와 수학 등을 집중 학습하게 된다.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마련된 교육 사회공헌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캠프 역시 전북지역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는 권역별로 나뉘어 전국 6개 대학에서 이뤄지는 데 전라지역 참가자는 전남대에서 캠프를 진행중이다.

전남대의 참여 인원은 중학생 301명이며 대학생 강사는 102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북지역 중학생들은 참여를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생 강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 지원하는만큼 도내 각 대학교에서는 참가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드림클래스 캠프에 전북지역 중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북교육의 철학과 맞지 않아 도 교육청에서 학생 추천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실제 도 교육청은 기업 사교육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겨울부터 학생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주중·주말 교실의 경우 각 학교에서 자체 판단, 진행하라고 했고 도내 5개 학교에서 178명이 참여했다"며 "그러나 방학때 운영하는 캠프에는 전북지역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학캠프의 경우 교육청 추천이 있어야 하지만 추천을 하지 않는다"며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도 교육청의 교육 방식과 다르기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는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사업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벌였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 89.5%는 '삼성의 드림클래스 방학캠프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전주시 독서학습동아리 '따스아리' 회원들은 지난 28일 노인요양시설인 이레복지원을 방문,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청소를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따스아리' 꾸준한 봉사활동 귀감

전주시 사회복지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독서학습동아리 이레복지원서 3년째 청소 · 말벗 · 마사지 · 나들이봉사 등

전주시 독서학습동아리 '따스아리' 회원들은 지난 28일 노인요양시설인 이레복지원을 방문,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청소를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 사회복지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따스아리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레복지원과는 3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따스아리 회원들은 이날, 주로 바깥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동불편한 환자들의 나들이를 돕고 손마사지, 네일아트 등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요즘 무더위로 바깥나들이를 하지못해 적적해 하는 어르신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무료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실내 바닥청소를 비롯, 밖의 풍경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닦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오연화 따스아리 대표는 "작은 봉사에도 크게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에 도리어 우리가 힘을 얻어 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 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에코시티 세병공원 '지붕 없는 미술관' 된다

전주시, 예술관련 전공 학생들의 작품 전시 공간 마련 계획
지역 대학생에게 전시공간 제공해 예술 인재 육성 기여
시민들에게 삶 속에서 예술작품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세병공원에 전주지역 예술관련 전공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 조성된다.

시는 에코시티 내 세병공원에 지역 예술전공 학생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예술작품 감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붕 없는 미술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시공간 부족으로 예술 관련 전공 학생들이 공들여 제작한 작품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예술대학 인재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전주시 예술인재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는 오는 8월말부터 기초공사에 착수, 전공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일정에 맞추어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시공간이 야외임을 감안, 전주지역 예술대학 관계자등과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시되는 예술작품이 기상 상황에 예민하지 않은 석재와 금속제품 등의 소재를 활용해 제작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과거 송천동 일원 도심지에 위치해온 35사단을 이전하고 이전부지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에코시티 부지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6월 조성이 완료했다.

김성문 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세병호 지붕 없는 미술관 조성계획은 우리 지역 예술대학 인재들에게는 재능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전시공간인 세병공원 등 홍보 효과는 물론, 공원 방문객과 에코시티 입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똑바로 앉아"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실형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똑바로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전기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에게 "똑바로 앉아 있으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를 앓는 B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백로의 사냥법 30일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의 전주천에서 백로 한마리가 긴 기다림 끝에 피라미 사냥에 성공하고 있다.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 생일상 차리기 행사

관내 어르신 · 아동에게 생일 축하와 함께 과일 · 학용품 전달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단장 김중태)은 지난 27일 금요일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생일상 차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 회원들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일상과 함께 어르신 2명과 아동 4명에게 과일과 학용품 등을 선물로 전달하여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시원한 여름을 위하여 이웃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은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달 마을신문 만들기 출정식을 한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밑반찬 나눔 봉사 등과 같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날 김중태 마을계획추진단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생일상 준비로 며칠 동안 수고해주신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웃들의 소중한 생일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지회장 갑질 못 참겠다"… 장애인협회 '내홍'

지회장 "사실무근, 법적대응"

도내 한 장애인협회가 지회장과 여직원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해당 장애인협회 소속 계약직 여직원 A씨는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회장에 취임한 B씨가 상습적인 폭언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소주병을 깨트리고 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기자회견을 자처했다"라며 "비정규직이 삶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B씨는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의 뜻을 밝혔다.

B씨는 "일부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결제하지 않은 비용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내보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A씨와 일부 직원에 대해 법적대응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